

[홈](#) > [뉴스](#) > [지역](#) > [원주](#)

지역 문화예술 현주소 진단

원주민예총, 23일 문화정책세미나 개최

2008년 12월 15일 (월)

차득남

최근 (가칭)원주문화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주민예총은 원주시와 강원민예총 후원으로 23일 '원주의 문화예술, 주소를 묻다'를 주제로 문화정책세미나 열고 원주문화재단 설립을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원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 예산, 시설 각각에 대한 발제로 진행된다.

정책분야는 원주시 관계자가 직접 나서 원주 문화예술 발전 및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며 예산 분야에서는 집행 과정의 투명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영철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장이 공간을 주제로 시민과 작가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시설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발제에 이어 김주완 원주예총 회장을 비롯 지역 문화예술인사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원주 문화예술의 현주소와 방향'을 주제로한 토론을 벌여 현재 원주시가 검토 중인 문화재단 설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차득남 cdn486@kado.net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